

## ‘국어 야전 사령부’

여규병

동아일보 기자, 어문연구팀 차장

### 1. 현해탄과 겐카이나다

뉴스 1: 일본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대한해협’의 이름을 ‘겐카이나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특정 지역의 지명은 인접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널리 쓰이는 겐카이나다가 양국 사이의 해협 이름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겐카이나다의 한국 측 발음인 ‘현해탄’이 쓰인 사례 수만 건을 수집해 국제해사기구 총회에 제출했다.

뉴스 2: 국제해사기구 총회는 국제 해도에 대한해협을 겐카이나다로 표기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는 겐카이나다로 표기하자는 일본 측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50 대 1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3년 전부터 전 세계의 모든 지도에 ‘대한해협’ 즉 ‘Korea Strait’라고 표기되어 왔으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는 또 겐카이나다가 일본에서는 대한해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 근처의 해상 국립공원의 이름일 뿐이라고 회원국들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수만 건의 한국 문건에 현해탄이 쓰였으며 현해탄은 두 나라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특히 일본은 1960년대 초 한국 국영방송의 인기 드라마이며, 후에 영화로도 제작된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들며 한국에서 겐카이나다의 한국 측 표기인 현해탄이 널리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부터 일반인들까지 즐겨 쓰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쓰여 온 이 겐카이나다를 채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구에서 발행하는 해도뿐 아니라 앞으로 제작되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에 대한해협이 ‘Korea Strait’ 대신 ‘Genkainada’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상의 상황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고 세계정세에 어두웠을 적에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했으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상당한 국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 스스로 대한해협을 두고 일본의 국정(國定) 해상공원의 이름인 현해탄을 즐겨 쓴다는 사실이 왠지 꺼림칙하다. 누가 언제 처음으로 현해탄을 대한해협 대신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해탄은 알고 있다’가 이 말을 널리 퍼뜨린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위의 ‘가상 뉴스 1’만이라도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국력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 2’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그때 ‘현해탄은 알고 있다’의 작가 한운사 씨를 비롯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후손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누구든 동해를 일본해라고 했다가는 온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므로 언론이든, 사회 유명 인사든, 일반인이든 어느 누구도 일본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으로 간다든지 하면 멋스럽게 표현한답시고 너나없이 현해탄을 들먹인다. 모두 현해탄의 실체를 모른 채 남이 현해탄이라고 하니 따라하는 것이다.

때마침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사가 ‘페르시아 만’을 ‘아라비아 만’이라고 표기해 페르시아 만을 고집해 온 이란과 내셔널지오그래픽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외신을 접하면서 ‘혹시 대한해협도…….’ 하는 걱정이 든다.

현해탄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한두 사람, 특히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이 잘못 쓴 말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잘못된 근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시인 김남조 씨는 ‘그대 있음에’라고 읊었다. 이 시는 많은 사람이 애송할 뿐 아니라 노래로도 만들어졌다. 그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대 있음에’로 잘못 쓰고 있다. 언론마저 ‘~ 있음에’를 남발하니 바른 표현 ‘~ 있음에’는 오히려 낯설어 한다.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로 시작한다. ‘자랑스럽다’는 우리말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불규칙 용언’이라는 사실을 안다. 즉 ‘자랑스런’이 아니라 ‘자랑스러운’이어야 하는 것이다. ‘훈글’ 등 한글 입력 프로그램 등에서도 ‘-스런’은 잘못임을 표시해 준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맹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요즘은 ‘-스럽다’만 붙으면 모두 ‘-스런’으로 활용한다. ‘사랑스런,

맛깔스런, 끔찍스런, 여성스런'처럼 말하고 쓰는 것이다. '-스럽다'를 위해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10여 년 전 '사랑이 뭐길래'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뭐길래'는 마땅히 '뭐기에'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어사정위원회에서 '-길래'와 '-기에'의 어감 차이를 논해서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 제약 회사의 드링크류 제품 상표에는 '피로 회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피로를 풀어 보려고 마시는 약품에 피로를 '회복'해 준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피로 회복'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로도 올라 있다. '회복'과 '해소'가 동의어가 돼 버린 것이다.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 위기를 두고 흔히 'IMF 위기'라고 한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어이다. 이 국제기구는 스스로 위기를 맞은 적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준 바도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IMF 위기'라고 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의 입에서 나와 퍼진 것이다.

요즘 정치권 등에서 유행하는 '뽀함'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다. '까아내리기'라는 뜻으로는 '뽀함'이라고 해야 한다.

### 3. 국어 야전 사령부

전문가 집단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 언론, 심지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이 잘못 쓴 말이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 우리말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른 국어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바른 국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언론이 바른 말글을 쓰지 못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사회 전체가 바른 말을 쓰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길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글 자막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이 많아 놀랐다. 노래 제목 중의 ‘예쁘니까’가 ‘이쁘니까’로 소개되는가 하면, 소망을 나타내는 뜻의 ‘바람’도 ‘바램’이라고 나올 때가 많다. 결코 ‘별것 아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자막의 글자가 틀린 줄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어의 맞춤법이 틀려서 지적하면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분명히 봤다고 주장한다.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여 줘도 믿지 않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2004년 8월 9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독자의 편지다. 국어 교육보다 사회 전체가 바른 말·바른 글을 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의 사회 분위기는 희망을 갖게 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말글과 관련된 고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퀴즈 프로그램도 방영하고 있다. 상당수의 신문에서도 말과 글에 관한 연재물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 고정란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말·글 관련 시민 단체도 많이 생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들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개의 움직임들은 산발적이어서 결집된 힘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이런 흩어져 있는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어원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어원은 해마다 언론, 인터넷 등에서 쓰인 말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아 지적하는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바로 이 작업의 효율을 높이면 되리라고 본다. 이 보고서가 주로 지적하는 언론의 잘못은 보고서가 나올 시점에는 그 대부분이 이미 잊혀진 상태이다. 언론의 잘못이든, 개인의 잘못이든 그날그날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한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떻게 그 많은 신문 방송을 그날그날 다 살피고 지적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는 특정 신문 몇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일정 기간엔 또 다른 신문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방송이며, 대기업의 광고며, 내로라하는 출판사의 책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 정치인의 말, 정부 기관의 공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이 과정의 결과물은 그날그날 공표해야 한다. 국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편지(스팸메일)라도 보내야 한다. 그날그날이 어렵다면 주 단위로라도 해야 한다.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회사나 기관 등에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기 위해 긴장하게 된다.

집중적으로 지적받는 쪽에서야 “왜 하필 우리나라?”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왕이면 주요 신문·방송·기업을, 대통령 등 힘 있는 권력자들을, 내로라하는 작가들을 성가시달 정도로 ‘괴롭혀야’ 한다. 이른바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느낄 만하게 만들자는 얘기다. 그래야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바른 우리말에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영향력 있는 쪽이 바른 말·바른 글을 쓰면 자연스레 언중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속되게 표현하자면 국어원은 우리말을 위해 기꺼이 ‘싸움닭’이 되어야 한다. 대상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무차별로 ‘공격’해야 한다. 물론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해 주면서 말이다.

“아무개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문서가 너무 어렵다.”, “요즘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 “외래어를 쓰더라도 표기법에 맞게 제대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혀를 찬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잘못을 수집해 수백 쪽짜리 보고서를 내놓은들 봐야 할 사람들은 정작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무엇 하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가. 보고서는 국어원의 성과물로 드러내 보이고 도서관 서가에 보관 듯이 꽂아 둘 수 있겠지만, 가혹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말글살이에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를 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면 과감히 대학 교수 등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야 한다. 국어원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야전군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능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이 그 적기다.